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시드니 출장자료

【 목 차 】

I. 호주 체류정보	01
II. 호주 개황	12
III. 호주 경제 무역동향	15
IV. 호주 주요 연락처	31





I. 호주 체류정보

1. 비자 및 출입국

□ 비자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자비자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ETA는 전자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 입국절차

-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카드)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음.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참고로 호주에 착륙 전에 미리 작성하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됨.
- 2016년 6월 20일부터 호주 이민·국경보호부는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함.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캐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이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

자료원: 호주이민국정보호청

□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AU\$10,000(US\$7,000)이상의 현금 휴대 시 공항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 필요
- 통관 중 입국신고서에 미 신고한 품목 적발 시 벌금(약 US\$230)이 부과
-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
-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중요). 입국수속의 지연 및 벌금 부과 가능
- 골프화(운동화)를 지참할 경우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표기해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담배 25개피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이상 반입 불가



2. 기후 및 시차

□ 기후

-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함.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임.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음.

□ 시차

- 한국과의 시차
 - 1시간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8시)
 - 2시간(서머타임)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첫 일요일까지(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7시)
 - 퀸즐랜드주의 경우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시차가 없음.

3. 환전

□ 환율 및 환전

- AU\$ 1 = 818.32원 (2019.7.29. 기준)
-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며, 공항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할 경우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전 금액이 클 경우 필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며, 환전 창구에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요구하니 여권을 준비해야 함. 호주에서 원화는 환전할 수 없음.



4. 교통

□ 대중교통

- 버스 :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이 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 가능. 일부 구간의 경우, 버스 내 현금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교통카드 구매가 권장됨.
- 전철/메트로 : 노선이 단순하여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됨. 단, 방문상담이 있거나 초행길일 경우 시간의 여유를 많이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카드 : 시드니 지역은 대중교통카드로 오펜카드(Opal Car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회용권을 구매해 결제할 때 보다 더 저렴하게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음. 오펜카드는 지하철역 창구 및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 택시

- 시드니를 처음 방문해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됨.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 기본요금은 3.60 호주달러임.



5. 공휴일(2019년, 2020년)

□ 호주 공휴일 (시드니)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시드니가 소재한 NSW주의 2019년 및 2020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19년	2020년
신년 (New Year's Day)	1월 1일 화요일	1월 1일 수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 Day)	1월 28일 월요일	1월 27일 월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19일 금요일	4월 10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20일 토요일	4월 11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21일 일요일	4월 12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22일 월요일	4월 13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5일 목요일	4월 25일 토요일
여왕 탄생일 (Queen's Birthday)	6월 10일 월요일	6월 8일 월요일
*은행 휴일 (Bank Holiday)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8월 5일 월요일	8월 3일 월요일
노동절 (Labour Day)	10월 7일 월요일	10월 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수요일	12월 25일 금요일
**박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목요일	12월 26일 토요일
대체 휴일 (Additional Day) **박싱 데이 대체 휴일		12월 28일 월요일

자료원: 호주 NSW주정부



6. 문화적 유의사항

□ 생활

- 대형 마트를 제외한 일반 상점은 대부분 5~6시 사이 문을 닫으며 쇼핑데이인 목요일에만 저녁 9~10시 까지 영업(지역마다 상이).
- 술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Liquor land, Dan Murphy's와 같은 전문 리쿼샵(Liquor Shop)에서만 구매 가능. 구매자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며, 구매자 동행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종종 시드니 시내에서는 경찰들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횡단을 걸리게 되면 75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함.
- 호주는 영국식 교통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반대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음. 처음 호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현지 교통 방향 및 법규 등에 유의하여야 함.
-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차가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337 호주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되며, 스피커폰으로 대화 시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됨.

□ 복장

-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임. 여름은 12월에서 2월 사이이며 한국 여름과 달리 건조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호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임. 겨울은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있어 밤과 이른 새벽은 한국 늦가을만큼 추우므로 겨울옷이 도움이 됨.



□ Tip

-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는 가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팁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됨.

□ 전압

- 240V, 50Hz의 전기 규격 사용. 콘센트 구멍이 3개(Y타입)로 되어 있어 한국 전기 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외국으로 전화 거는 법

- 일반전화: 호주에서 외국전화시 0011 누르고 국가번호 시작
- 수신자부담전화
 -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 호텔사용시: 0 ▶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7. 호주 역사 및 시드니 주요 관광지

□ 호주의 역사

- 유럽인 출현 이전
 - 최초의 호주 원주민(Aborigine)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대륙과 가깝게 근접하였던 최소한 6만년 전부터 살아온 것으로 알려짐. 호주 원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수 백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로 추정됨.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만 해도 호주 원주민들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나, 미국의 인디언 등과는 달리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1788년에는 백인이 호주의 주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1800 ~ 1900년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님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A. PHILLIP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배해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1901년 이후 (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CANBERRA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 OECD에 가입되었으며 1975년 파푸아 뉴기니아가 호주에서 정식 독립되고 2016년 7월 2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연립당 Malcolm Turnbull이 29대 총리로 연임.

□ 시드니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 (Opera House)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에 완공됨.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 가량의 관객 유치. 구조는 지붕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 350km의 강철선 지붕위 4,253개의 조립식틀 위에 1,056,000개의 타일이 배열, 지붕의 무게는 27,230톤이고, 전체 무게는 161,000톤에 이르는 이 건물을 바다 밑 25m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 전체 넓이는 2.2헥타이고 건물 자체는 1.8헥타임.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됨.

○ 하버 브리지 (Harbour Bridge)



1932. 3. 개통되었고, 시드니 거주자들은 "큰 옷 걸이"라 부름.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면과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 5천만 호주달러, Arch부분 수리예산 연간 5백만 호주달러임.

○ 시드니 항 (Sydney Harbour)



항구는 Middle Harbour, Port Jackson, Parramatta River, Lane Cove River, Iron Cov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이 중심수역임. 호주 이민 및 식민 역사가 1778년 동 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간만의 차도 미미,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모래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 가능함. 하수도 외해 부근에 집적, 오수여과처리 후 외해로 방출

○ 하이드 파크 (Hyde Park)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 됨.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함.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 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음.

○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음. 1816년에 설립됨. 면적은 약 54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공원으로 애용됨.

○ 세인트 메리 대성당 (Saint Mary's Cathedral)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함.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음.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음. 성당의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임.

○ 본다이 비치 (Bondi Beach)



시드니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시드니 동쪽에 위치. 백사장이 10km 정도 이어져 있으며 파도가 높아 서핑의 명소로 알려짐. 해변가를 따라 이어진 캠벨 퍼레이드에는 쇼핑센터,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매주 일요일에는 본다이 마켓이라는 벼룩시장이 열림.

○ 갭 파크 (Gap Park)



시드니 와슨스베이 입구로 오랜 세월 침식과 퇴적으로 형성된 절벽 바위에 수많은 틈이 생겨서 갭 (Gap)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절벽 위의 마을과 해발 100미터 절벽에 굽이치는 파도가 장관을 이루고 있음. 호주 개척 시절 영국 죄수들이 자살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공원의 한쪽에는 1857년 침몰한 영국 함선이 남긴 거대한 닻이 보존돼 있으며 함께 수장된 선원을 기리는 추모탑을 볼 수 있음.

○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대협곡임.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임.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관광열차 등이 있음.



8. 현지 식당 정보

□ 시드니 시내(CBD) 식당

- 단지 (Danjee Korean BBQ restaurant) / 한식
 - 주소 : 1-7 Albion Pl,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8084 9041
 - 홈페이지 : www.danjeecom.au

- 시드니 마당 (Sydney Madang Korean BBQ) / 한식
 - 주소 : 371A Pitt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4 7010
 - 홈페이지 : www.facebook.com/Madang2006 (페이스북)

-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 (Kingsleys Steakhouse) / 호주식(스테이크)
 - 주소 :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95 5080
 - 홈페이지 : www.kingsleysauststeak.com.au

- 스시 앤 그릴 앳 요크 스트리트 (Sushi & Grill @ York Street) / 일식
 - 주소 : LG 119 York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4 7888
 - 홈페이지 : www.sushiandgrill.com.au

- 스시 테이 (Sushi Tei) / 일식
 - 주소 : 1 Chifley Square,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32 7288
 - 홈페이지 : www.sushitei.com.au

- 골든 센츄리 (Golden Century Seafood Restaurant) / 중식
 - 주소 : 393-399 Sussex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12 3901
 - 홈페이지 : www.goldencentury.com.au



II. 호주 개황

1. 일반 개황

국명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행정구역	6州(state) 2準州(territory)
수도	캔버라
주요 도시	시드니(523만명), 멜버른(496만명), 브리즈번(246만명), 퍼스(206만명), 아들레이드(135만명), 호바트(23만명), 다윈(15만명) (2018년 6월)
인구	2,541만명 (2019년 7월)
민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Scott Morrison 총리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연립당이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 (호주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2. 정치 사회 현황

□ 정치 체계 및 현황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의회(Parl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든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국민연합당이 151석중 76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유력 우승 후보였던 노동당을 재치고 3번째 재집권에 성공함. 현 자유국민연합당의 당수는 스콧 모리슨 총리로 2018년 8월 24일 당권 경쟁서 승리하여 30대 호주연방총리로 선출된 바 있음.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사회 현황

- 2019년 7월 1일 부 호주 최저임금, 3% 인상
 - 회계연도 2019-20년 호주 최저임금이 전년(3.5%)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인 3%가 인상됨. 이에 따라 최저시급이 기존 18.93 호주달러에서 2019년 7월 1일 부 19.49호주달러로 상승함.
 - 호주 노조협의회는 올해 6%, 내년 5.5%로 2년 동안 총 11.5% 임금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일자리 파괴 및 경제성장 위협 초래를 우려, 3% 인상에 그침.

- 자유국민연합당 재집권에 따른 분야별 주요 정책
 - (외교) 태평양 지원 확대 및 미국 동맹 강화
 - 태평양 지역 금융 시설 인프라 위해 20억 호주달러 투자
 - 지역안정, 국익향상 위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중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추구
 - (농수산·임업) 농수산업 육성 및 산림 산업 지원
 - 2030년까지 호주 농수산업 1,000억 호주달러 규모 육성. 국내 농수산물 수출 부문 2,94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 2천만 호주달러 규모 국립 산림 산업 계획 추진
 - (인프라) 전국적 인프라 사업 및 광통신망 프로젝트 구축
 - 향후 10년 국내 교통 인프라에 1,000억 호주달러 투자
 - 호주 광통신망(NBN) 프로젝트 FTTN 방식으로 2020년까지 완료
 - (부동산) 부동산 정책 유지 및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 유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정책 강화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주택 보증금 5%와 최소 보증금 20% 사이 차액 정부가 보증
 - (세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배당 세액공제 혜택
 - 2024년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 세율 최고 30%대로 인하
 - 이중 과세 막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혜택 현 정책 유지
 - (의료) 공공보건 지원 확대 및 개인의료·공공병원 상생 강조
 - 공공병원 대한 정부 지원, 향후 3년간 12억 5,000만 호주달러 배정
 - 개인의료보험 부담 완화 위해 공공병원 부담 추진
 - (환경·재생에너지) 탄소배출량 보수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6-28% 감축 계획안 발표
 - 3년 간 재생 에너지 산업에 150억 호주달러 투자

III. 호주 경제 무역동향

1. 경제 동향

□ 호주 경제의 특징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 1차 산업 위주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7%를 차지
 - 부동산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 의료 등 발달. 특히 호주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 인방문객 수 매해 증가

<호주의 산업별 GDP비중>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GDP 비중	2.6%	6.4%	6.3%	8.1%	76.6%

자료원: Austrade,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9(2019.7월 확인)

- 광물자원 가격의 회복으로 당분간 관련 제품 수출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7.0%)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8.0%), 생산량 세계 1위(37.0%)
- 매장량 세계 1위 : 금(18%), 우라늄(29%), 아연(29%), 니켈(26.0%)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은(매장량 2위) 등

자료원: Austrade,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17(2019.7월 확인)

- 동부 해안 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NSW, VIC, QLD)가 인구의 78%, GDP의 75% 점유

구 분	NSW	VIC	QLD	기 타
GDP 비중	31.9%	25.9%	20.0%	22.2%
(인구)	(805만명)	(653만명)	(505만명)	(555만명)

자료원: 호주통계청(2018년 12월 기준)



□ 최근 호주 경제동향

- 호주 경제성장률, 세계금융위기 이래 최저치 기록
 - OECD는 2019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2.28%로 예측,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Australia, RBA) 역시 연평균 2%를 전망함. RBA는 지난해 하반기 2019년 경제성장을 2.75%로 전망한 바 있으나 올해 5월, 이를 정정해 0.75% 하락한 2%로 발표함.
 - 호주통계청(ABS)은 호주 경제가 지난 27년 동안 연속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분기 1.7%의 경제성장률에 머무르며, 세계금융위기(Global Finance Crisis)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특히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2019년 1/4분기 호주 경제성장이 2018년 4/4분기 대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서비스, 광업,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임업, 건설, 제조업 등 주요 분야의 부진으로, 전반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RBA는 호주 수출 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가 국내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호주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항목	OECD		RBA		NAB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경제성장률(%)	2.28	2.52	2.00	2.75	1.70	2.30
민간소비(%)	2.60	2.85	2.00	2.75	—	—
소비자물가지수(%)	1.57	2.26	2.00	2.00	1.68	1.85
실업률(%)	5.14	5.13	5.00	5.00	5.20	5.30
A\$/US\$ 환율	0.71	0.70	—	—	0.72	0.75

자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준비은행(RBA), 네셔널호주은행(NAB)

- 실업을 악화 및 낮은 물가인상률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인하
 - RBA는 2019년 6월 5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7월 2일 사상 최저인 1%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함.
 - 이러한 조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상승률 저조 및 최근 2개월 연속 국내 실업률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임.

- 호주 실업률은 연초 4.9%에서 7월 5월 기준 5.2%로 악화되었으며, GDP 성장률 역시 2% 미만으로 낮아져 지난 10년 동안 가장 부진한 상태임.
- 한편, RBA에서 발표한 2019년 7월 4일 기준 호주 GDP 성장률은 1.8%로 집계됨.

<2014-2019.7 호주 GDP 성장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7
성장률(%)	2.7	2.4	2.6	2.8	2.3	1.8

자료원: IMF, Reserve Bank of Australia(RBA 2019.5)

<호주 GDP 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원: Trading Economics(호주통계청 자료 활용)

○ 부문별 동향

- 2019년, 민간소비심리 소폭 하락 전망

- 2018년까지 100 내외를 유지하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9년 1월 99.6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2월에서 6월까지 지속 100선을 유지하였으나 7월 현재 96.5로 크게 하락함.
-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가계 부채 증가로 민간 소비심리 하락세 전망
- * 소비자 신뢰지수 : 103.3('14.1)→ 91.1('15.1)→ 97.3('16.1)→ 97.4('17.1)→ 105.1('18.1)→ 99.69('19.1)→ 96.58('19.7)



- 주요 수출시장 경제둔화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지속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20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 실시, 2016년 7월 금리를 1.75%로 인하한데 이어 2016년 8월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 2019년 6월과 7월 추가로 0.25% 씩 인하를 감행하면서 2019년 7월 현재 1%의 역대 최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
 -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설립된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임.
 - 다수의 호주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9년에도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위에 나타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금리가 또다시 인하 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 금리추이 : 2.50%('14.1)→ 2.50%('15.1)→ 2.25%('15.2)→ 2.00%('16.1)→ 1.75%('16.5)→ 1.50%('16.8)→ 1.50%('17.1)→ 1.50%('18.1)→ 1.50%('19.1)→ 1.25%('19.6)→ 1.0%('19.7)

<호주 금리 변화 추이>



자료원: Trading Economics(호주통계청 자료 활용)

- 호주달러 가치 지속 약세 전망
 - 지난 1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
 - * 미화대비 호주달러화 추이 : 60%(2004)→ 110%(2012-13)→ 90%(2014)→ 70%(2015-20)
 - 2013년 1.02~1.04 미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던 호주달러는 0.7선이 붕괴되는 등 큰 약세를 보였음.
 - 2016년 1월 0.69 미달러까지 하락한 호주달러는 2017년 1월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18년 초 0.79 미달러까지 올라섰으나, 2019년 7월 현재 다시 하락하여 0.69 미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호주 1\$ 대비 US\$ 가치 : 0.8912('14.1)→ 0.8127('15.1)→ 0.7223('16.1)→ 0.7579('17.1)→ 0.7916('18.1)→ 0.7199('19.1)→ 0.6910('19.7)

- 호주 실업률 2020년까지 5%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2015년 초 실업률은 6.4%까지 상승하였지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활성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로 2017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5% 대를 유지하고 있음.

* 실업률 추이 : 5.9%('14.1)→ 6.4%('15.1)→ 6.0%('16.1)→ 5.8%('17.1)→ 5.5%('18.4)→ 5.0%('19.1)→ 5.2%('19.7)

· 2019년 5월 기준, 42,3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 시간은 예년대비 줄어들었으며, 7월 현재 호주의 실업률은 5.2%에 머물러 있음.

· 호주 주요 언론들은 국내 총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함. 이는 풀타임 고용은 줄어들고 최근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프리랜서 형태의 직종인 우버(Uber), 에어타스커(Airtasker), 딜리버루(Deliveroo) 등 수요에 따라 건건이 이루어지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RBA는 2020년까지 호주 실업률이 5%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4.75%로 달성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호주 실업률 변화 추이>



자료원: Trading Economics(호주통계청 자료 활용)

2. 무역 동향

(1) 호주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지속 감소, '17년 기점으로 회복 추세
 - 2018년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4,841억 미달러로 '17년 대비 6.98% 증가
 -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 호주 4위 교역국 달성
 - 2019년 1~5월 호주 교역 규모 전년 동일분기 대비 1.06% 가량 증가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억US달러)

순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1-5월
	전체	3,882	3,818	4,525	4,841	1,983
1	중국	1,028	1,050	1,255	1,433	622
2	일본	446	411	499	582	231
3	미국	325	304	318	330	140
4	한국	247	210	317	276	101
5	인도	113	116	160	165	57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출입 동향

- 호주의 수출은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음. 2018년 호주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22% 가량 증가한 2,571억 미달러임.
- 수입은 2012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7년 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호주 총 수입은 전년대비 2.55% 가량 늘어난 2,270억 미달러임.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US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1-5월
수출	1,877	1,925	2,311	2,571	1,097
수입	2,005	1,893	2,214	2,270	886
무역수지	-128	32	97	301	21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

○ 주요 수출 품목

-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호주 주요 농지에 닥친 극심한 가뭄 현상으로 주요 작물인 밀(Wheat) 생산이 전년대비 23% 감소함. 때문에 호주 정부는 최근 12년 만에 밀 수입을 감행하기도 하였음. 이와 같은 영향으로 호주의 곡물 수출이 25%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외 특수지정상품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은 대부분 증가하였음.
- 지속되는 세계적 원자재 가격의 회복으로 2019년에도 호주의 광물 및 광물성 연료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품 목	2017		2018		2019.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699	38.66	911	30.29	377	9.24
2	광물	594	19.65	604	1.64	295	17.25
3	귀금속류	154	-3.02	161	4.99	68	-7.31
4	육류	90	10.16	100	11.57	43	10.09
5	무기화합물 및 회토류	62	34.80	82	32.85	29	-6.32
6	곡류	65	28.43	49	-25.64	19	-25.86
7	핵 반응기계	46	-4.72	48	3.70	19	0.73
8	알루미늄	31	7.92	38	21.67	14	-13.52
9	특수지정상품	44	-2.07	35	-21.01	15	-0.56
10	전자기계	31	16.15	32	3.18	13	9.73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7% 이상을 차지

<주요 수출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1-5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764	33.05	878	34.16	403	36.74
2	일본	339	14.63	413	16.07	168	15.33
3	한국	156	6.68	177	6.88	67	6.14
4	인도	121	5.22	124	4.84	44	3.99
5	미국	90	3.89	97	3.77	41	3.77
6	대만	66	2.86	78	3.05	37	3.41
7	홍콩	92	3.97	78	3.03	26	2.41
8	싱가포르	51	2.20	73	2.84	30	2.70
9	뉴질랜드	69	2.98	72	2.79	27	2.48
10	말레이시아	44	1.89	55	2.14	27	2.51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대상국

○ 주요 수입 품목

- 2018년에는 LNG 등 광물성 연료 수입이 32% 이상 증가하였으며 철 및 철강 제품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22%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임.
- 호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 소비의 감소, 지속되는 환율 약화 및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을 둔화의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전년대비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의약품만이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1-5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핵반응 기계	288	5.81	318	10.48	127	-2.12
2	광물성 연료	229	29.97	302	32.22	113	-7.85
3	자동차	294	12.22	300	2.00	118	-8.34
4	전자기계	229	13.27	256	12.03	96	-3.85
5	광학 및 의료기구	78	0.32	83	6.23	33	-2.08
6	의약품	79	1.3	82	3.78	35	0.39
7	귀금속류	66	-13.11	66	-0.18	23	-26.70
8	플라스틱류	58	8.29	64	9.84	24	-6.50
9	철 및 철강제품	41	0.62	50	21.64	19	-10.93
10	가구, 침구 및 램프 등	44	2.56	48	9.39	18	-0.32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47%를 차지. 이 중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전체의 24%이상을 점유
- 한국은 2017년 對호주 4위 수출국이였으나 2018년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6위로 밀려남.

<주요 수입국>

(단위: 억US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1-5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491	22.17	555	24.45	219	24.70
2	미국	228	10.29	233	10.28	99	11.14
3	일본	161	7.28	168	7.42	63	7.07
4	독일	105	4.74	112	4.95	46	5.23
5	태국	110	4.98	111	4.91	42	4.69
6	한국	161	7.27	99	4.35	34	3.84
7	말레이시아	85	3.84	96	4.25	32	3.66
8	싱가포르	63	2.84	85	3.76	28	3.15
9	뉴질랜드	59	2.66	59	2.58	23	2.56
10	영국	53	2.37	54	2.38	22	2.45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18년 대 호주 수출은 96억 미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6% 감소, 수입은 209억 미달러로 8.1% 증가, 무역수지 111억 미달러 적자

(단위 : 백만US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1~6월
수출	7,501(-30.7)	19,862(164.8)	9,610(-51.6)	3,832(-24.4)
수입	15,176(-7.7)	19,149(26.3)	20,719(8.1)	9,906(1.4)
무역수지	-7,676	702	-11,109	-6,07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17년 대 호주 LNG 해양플랜트(FRELUDE 북서부 해안) 및 선박 수출로 수출액 급증 한편, 2018년에는 전년대비 51.5% 감소로 전환
 -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등 일부 석유제품 및 중장비 수출 증가, 승용차, 경유, 휘발유 등은 감소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2019.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229	19.2	2,119	-4.9	977	-10.7
2	경유	1,982	72.3	1,804	-9.0	562	-42.8
3	제트유및등유	1,103	115.7	1,555	40.9	453	-48.1
4	휘발유	969	-4.2	733	-23.4	227	-34.2
5	합성수지	146	25.8	168	15.4	61	-29.1
6	건설중장비	126	25.4	163	29.2	51	-38.7
7	축전기	140	38.6	138	-1.4	85	12.8
8	수산화나트륨	124	52.4	129	4.0	45	-47.4
9	알루미늄조각품	111	46.3	116	4.3	52	-10.8
10	기타석유제품	88	92.2	105	19.6	43	-29.9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니켈과 및 스크랩, 동과 및 스크랩 등 스크랩 전반 수입 감소
- 호주 3대 LNG 사업이 2018년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함에 따라 생산 및 공급량 증가, 한국의 對호주 수입 증가에 영향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17		2018		2019.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5,361	44.7	5,422	1.1	2,842	6.8
2	천연가스	2,912	63.5	4,250	46.0	1,709	-7.9
3	철광	3,585	26.4	3,405	-5.0	2,032	17.7
4	가축육류	1,165	0.3	1,247	7.0	694	5.3
5	원유	638	22.7	811	27.1	217	-8.9
6	알루미늄과및스크랩	738	-8.7	729	-1.2	343	7.3
7	아연광	422	52.7	624	47.8	140	-57.5
8	기타금속광물	417	19.2	564	35.2	279	-10.6
9	동광	604	4.4	475	-21.3	177	49.5
10	당류	794	17.9	432	-45.6	149	-32.5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2019.1-5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4. 투자 동향

(2) 호주 투자 동향

□ 투자유치 현황

- 지난 5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18년 투자 유치 금액 9,675억 호주달러(직접투자)로 전년대비 9.5%(837억 호주달러) 증가
 - 가장 최근 발표된(2019년 5월)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직접 투자유치 금액은 미국이 2,143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 름. 단, 호주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 유치액을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위가 정확한 것은 아님.

<2016-2018년 국가별 호주 직접투자>

(단위 : 백만AU달러, %)

순위	국명	2016		2017		2018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	미국	194,518	23.2	193,511	21.9	214,291	22.1
2	일본	97,370	11.6	97,118	11.0	105,898	10.9
3	영국	74,718	8.9	87,137	9.9	98,747	10.2
4	네덜란드	51,518	6.2	56,009	6.3	49,262	5.1
5	중국	38,693	4.6	38,376	4.3	40,105	4.1
6	버뮤다	34,979	4.2	38,300	4.3	39,780	4.1
7	캐나다	27,824	3.3	32,175	3.6	36,928	3.8
8	프랑스	6,120	0.7	6,479	0.7	28,741	3.0
9	싱가포르	23,289	2.8	25,988	2.9	28,025	2.9
10	독일	19,543	2.3	24,008	2.7	24,299	2.5
19	한국	4,367	0.5	4,580	0.5	5,189	0.5
-	기타	264,734	31.7	280,159	31.9	296,240	30.8
	합계	837,673	100	883,840	100	967,505	100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9.5)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 일부 원자재 가격 회복세에 따른 광산 분야 투자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이 호주 최대 투자 유치 분야
- 호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은 3차 산업으로 지속된 불안정한 광산 시장 경기로 서비스산업이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 그 뒤를 광산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이 뒤따름.

<2014-2018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누계)>

(단위 : 백만AU달러, %)

업종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710,233	774,416	837,673	883,840	967,505
1차 산업	297,386	317,040	339,526	347,178	368,679
농림수산업	1,544	3,209	3,279	3,569	3,163
광업	295,842	313,831	336,247	343,609	365,516
2차 산업	86,341	90,528	94,697	101,795	107,651
제조업	86,341	90,528	94,697	101,795	107,651
3차 산업	326,082	366,024	398,976	432,806	490,395
전기, 가스, 수도	12,814	15,926	15,834	20,385	21,677
건설업	18,942	17,511	20,188	24,368	22,447
유통 및 도소매업	58,683	52,851	53,762	54,673	56,667
숙박요식업	8,138	7,242	6,973	6,799	8,745
수송 및 창고업	13,576	21,171	24,843	19,969	19,493
정보통신	25,027	26,435	25,136	25,458	26,891
금융 및 보험업	50,915	63,713	66,059	73,849	107,529
부동산업	46,815	58,102	75,623	90,831	102,851
전문, 공학, 기술업	3,786	4,521	5,400	6,633	6,484
행정지원서비스업	1,832	1,555	3,773	4,071	4,652
공공행정	np	np	np	np	839
교육	-	np	np	np	np
보건 및 사회활동	3,641	1,778	3,526	3,978	3,933
예술 및 오락	232	np	np	np	np
기타서비스	np	np	303	np	np
미분류	81,681	95,219	97,556	101,792	108,187

주: 1) 'np' not available for publication (대외공개불가)

2) '-' nil or rounded to zero (없음 또는 '0'으로 반올림)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9.5)



(2)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대 호주 투자

- 2018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4건(86백만 미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 전기가스 및 도소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투자금액 기준 광업 15백만 미달러(17.4%), 제조업 5백만 미달러(5.8%), 전기 및 가스 4백만 미달러(4.7%), 도소매업 4백만 미달러(4.7%) 순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18)는 신고기준으로 1,912건, 200억 미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49억 미달러(74.5%), 부동산 및 임대업 22억 미달러(11%), 제조업 8억 미달러(4%), 운수업 6억 미달러(3%) 순

<한국의 대 호주 투자 추이>

(단위 : 백만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6	83	47	189	146
2007	120	53	155	143
2008	142	57	654	580
2009	130	36	1,252	266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682
2014	71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6
2016	118	38	1,595	1,299
2017	93	23	533	680
2018	24	4	86	122
누계(1980~2018)	1,912	724	19,950	14,169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대 호주 진출기업은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55개사 가량 진출

연 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7		YG-1호주법인	YG-1	VIC
8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9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10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1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2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3		썬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4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5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16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17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18	에너지	LG화학	LG Chem Australia	VIC
19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0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1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2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23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NSW
24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25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26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27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28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29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0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31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32		LG상사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33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34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35		포스코인터네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36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37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38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39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40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41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42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43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44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45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NSW
46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47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48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49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50	서비스	대한항공(주)	Korean Air	NSW
51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52		이노션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NSW
53		현대홈쇼핑	Australian Shopping Network	NSW
54	방위/방산	한화디펜스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NSW
55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 호주의 대 한국 투자

- 2018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총 33건으로 신고기준 20억 미달러 기록, 신고금액 전년 대비 14배 이상 대폭 증가
- 2018년 對한국 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17년 전무했던 운송용 기계 부문에 대한 투자가 17억 미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 역시 전년대비 268배 가량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정보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018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3%), 영국(16.1%), 뉴질랜드(3.7%) 등 영어사용국에 48%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0.9% 가량임.
- 한편,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62-'19,Q2)는 신고기준으로 636건, 4,746백만 미달러에 달함.

<호주의 대 한국 투자 추이>

(단위 : 천US달러,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6
신고건수	27	22	24	31	45	26	33	12
신고금액	152,569	50,491	139,833	85,193	79,157	142,330	2,007,357	85,901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IV. 현지 주요 연락처

☐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이백순 대사	+61 2 6270 4100	캔버라 소재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상우 총영사	+61 2 9210 0200	시드니 소재
경찰(범죄신고)		000	
응급 구조대		000	
병원 응급실		+61 2 9382 7111	
대한항공	김재현 지사장	+61 2 9262 2041	시드니 소재
아시아나항공	김태완 지사장	+61 2 9767 4346	시드니 소재
퀀타스(Qantas)항공	—	+61 13 13 13	—
콜택시(St. George Cabs)	—	+61 13 21 66	—
콜택시(Legion Cabs)	—	+61 13 14 51	—

☐ 무역관 연락처

구분	성명	전화
시드니 무역관 Suite 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2000 Ph: 02) 9264-5199 / Fax: 02) 9264-5299	서강석 관장	+61 413 388 282
	최정락 차장	+61 421 646 928
	김보혜 과장	+61 421 312 626
멜버른 무역관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3004 Ph: 03) 9860-0500 / Fax: 03) 9860-0599	변용섭 관장	+61 452 161 511
	예광호 과장	+61 433 361 910

/끝/



www.kotra.or.kr